

기독교 세계관은 삶의 나침반입니다

산더 그리퐁(Sander Griffioen)과 헝크 헤르세마(Henk Geertsema) 교수는 신칼빈주의(Neo-Calvinism)의 본산이며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을 체계화시킨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20년 이상 함께 철학을 가르쳤다. 이들은 자유대학교의 창시자인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나 그에 앞서 이 운동을 일으켰던 호론 반 프린스터(Groen van Prinsterer)에 이어 신칼빈주의 세계관에 바탕을 둔 개혁주의 기독교 철학을 정립한 헤르만 도에베르트(Herman Dooyeweerd)와 디렉 볼렌호벤(Dirk H. Th. Vollenhoven)을 이은 3세대 기독교 철학자이다. 특히 케냐의 기독교 학문연구소(Institute for Christian Studies)와 미국의 칼빈대학교, 그리고 스위스의 라브리 등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 기독교 세계관 운동 확산에 이바지했다. 손봉호 교수와 함께 공부하며 오랜 우정을 나누어 왔으며, 총신대학교의 신국원 교수와 한동대학교의 최용준 교수의 지도교수들이기도 하다. 이들은 이미 한국에도 여러 번 방문하여 총신대학교와 고신대학교, 서강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한동대학교 등지에서 강의와 기독교세계관학술회의의 세미나를 통하여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큰 도움을 준 바 있다. (유튜브에서 지난 세미나를 볼 수 있다. www.youtube.com/watch?v=kxR8VBVpk)

Question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선 세계관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계관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요.

Answer 산더 그리퐁 세계관이란 인간의 삶이나 세계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입니다. 19세기에 칼뱅주의를 바탕으로 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관점이 나타났습니다. 칼뱅주의는 세계관에 대해 말할 때 '관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시기에 철학에서도 세계관이라는 용어를 대중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다원론적인 사고가 철학에서부터가 아니라 세계관을 통해서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흥미로운 것은 세계관을 보는 방법이 개별적이란 데 있습니다. 즉, 세계관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갖고 있는, 세계를 보는 광범위한 시각을 의미하지요. 철학적으로는 다원론적인 관점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은 하나 이상의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세계관 역시 다양한 세계관 중 한 종류에 불과하다는 것은 아닌



니다. 오히려 기독교 세계관은 다원론적인 세계관에서 세계와 인간에 대해 바른 세계관을 제시할 사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Question 세계관에 대한 좋은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는 어떤 이해가 필요할까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면 창조, 타락, 구속의 도식을 생각하게 됩니다.

Answer 헝크 헤르세마 저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 두 가지의 요점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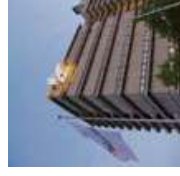
하나, 기독교적 세계관이 세계관을 동원한다는 점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은 무엇에 대한 시각이 아니라 어떠한 것에 반응하는 시각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에게 반응함으로써 세계를 맺습니다.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자 구속자라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이런 인식을 교리가 아니라 세계관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요점은, 현실 가운데 '창조의 관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조된 세계가 있었고, 타락이 있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Vrije Universiteit Amsterdam)

암스테르담 시 남부의 신시가지인 Bovenkerk에 있다. 지붕(Roof)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학문을 규기와 교회의 구분하여 두셨다는 '영역 구분' 사상을 따라 규기와 교회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함을 표방한 것이다. 모든 교육이 국가 재정과 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네덜란드에서 이러한 대학교의 설립은 절대 감시 없었었다. 결국, 모든 교육을 세계관에 따라 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장치들을 확립하기 위한 '학교법정'(de schoolwet)이라 명명하는 창기전의 투쟁이 벌어졌고 이를 통해 기독교 학교들은 본격적인 모습을 획득했다. 자유대학교는 이 운동의 일환으로서 당시 반혁명당(Ant-Revolutionary Party=Appel)의 당수였던 아르만 카이퍼에 의해 1860년 10월 20일에 설립되었다.

카이퍼는 세속화된 국립대학교들과 달리 성경적이고 개혁신학적인 토대에 근거한 학문을 수행하고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려 고 몸부림쳤다. 또한, 단순히 개혁신학을 가르칠 수 있는 신학도 설립에 만족하지 않았다. 개혁신학적인 학문에 근거해 모든 학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하는 종합대학을 설립이 목표였다. 이와 같은 설립 이념을 카이퍼는 대학의 설립을 조율하여 행한 강연에서 명시적으로 대내외에 표명했다. 강연의 제목은 '영역주권론(Sovereignty in the distinctive spheres of human life)이다. 그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으며, 3)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은 모든 삶의 개별 영역들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이념은 이미 빌라 칼리시니 다움의 구약에서 잘장을 이루었다: '인간 존재의 진영역 중에는 만물의 수권자인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시는 곳은 단 한곳도 없다.'

카이퍼의 주장은 보통 네덜란드어로 진행되며 영어 과정도 있다. 석사과정 이상은 영어 위주로 진행된다. 네덜란드의 내외 인사와 정치인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수상을 역임한 안 페터르 발케넨더(Jan Peter Balkenende)도 강세대의 교수였고, 재정부 장관을 지낸 게르 자를(Gert Zalm), 저명한 정치인이었던 필 포그티언(Pim Fortuyn) 등이 자유대학교에서 공부했다. (현대 우수 이니셜로기) (Nick of Our Time)와 (자본주의와 진보사상)(Capitalism and Progress)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하우츠바르트(De Hondius)와 (현대철학과 문화의 죽음), (기독교의 예술) 등을 쓴 힌스 로크마케렌스 Roommaker도 이 대학의 교수였다. 본과 암스테르담 시의 중심에 있었으나, 학생 수의 증가로 1973년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 현재 25,000여 명의 교직원(academic staff) 근무하고 있고 23,000여 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 구속의 역사가 있었죠. 하지만 이것이 항상 도식적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키는 현실 가운데는 실제로 깨어짐과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회복과 구수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창조는 과거 어느 시점에 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끊임없이 창조의 사역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된 세계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에게서 세계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적 사고는 우리가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깨어짐이 발생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단지 창지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만 나와 세계에 대한 바른 의미와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교회 현장에서 기독교 세계관 교육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면 학자나 지식인들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성도들의 현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좋은 생각이나 제안이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Answer 신더 호리홀 지희 교회에서 성도들과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터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토로했습니다. 그중 의과대학에 재진 한 교수분의 고백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논문을 지도하던 중 낙태된 태아에서 추출된 물질을 사용해 연구한 지도는 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 갈등하다가 끝내 심사하기를 거절했다고 하시더군요. 이날 모임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나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지만, 큰 위익이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 이러한 소통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작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Answer 헵크 헤르세마 성도들이 현실 속에서 복음의 신념을 가지고 생활하다보면 그곳에서 현실적 세계관과 충돌하는 일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목회자들은 설교를 통해 성도들이 삶의 현장, 즉 직장이나 가정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계속 도전해야 합니다. 즉, 현실 가운데 창조가 무엇인지, 깨어짐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어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복음이 가진 세계관을 단지 사람들을 진도하고 회심시키는 것으로 축소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Question 그리스도인의 삶이 신앙과 결부되지 않는 것은 믿음과 이성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시각(세계관)에서 생기는 문제 같습니다. 특별히 복음주의 전통에서 반지성주의(Anti-intellectualism)적인 풍토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신더 호리홀 한국뿐 아니라 네덜란드에도 반 지성주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오늘날 꽤 흔한 현상이죠. 학문의 세계와 성경의 세계가 분리되어 있어요.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처럼 여겨집니다. 학교에 있는 저로서는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 안에서 생활하던 학생들이 아카데미만한 연구를 하려면 낯선 학문의 영역을 공부하기 위해 다시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Answer 헵크 헤르세마 네덜란드의 교회에서도 이원론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은 기독교 교리가 사람들의 삶 전반에 진달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생각에 기르침을 주는 것으로 그쳤다는 데 있습니다. 지식과 실제 삶의 연결고리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실제 삶에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목회자들의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목회자들은 기독교적 세계관의 관점을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방법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Question 교회 현장에서 기독교 세계관이 올바르게 교육되지 않는 것은 목회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교회가 성도들 개개인이 부딪히는 현실의 삶보다는 영혼 구원과 성령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Answer 헵크 헤르세마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설교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부분만을 강조한 나머지 그리스도가 우리 삶 전체의 구주가 되신 것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이후 개인은 교회에 헌신하는 일꾼이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갈지 고민해야 합니다.

Answer 신더 호리홀 지희 교회 이야기를 하나 하죠. 교회에 중합이 있는데 청년들이 그 중합에 올라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것만을 내걸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신뢰하라는 그들의 열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메시지를 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 생각에 그 메시지를 접하는 사람들은 "당신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할 격려의 메시지도입니다. 저 역시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 관계의 차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관계에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심판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복음을 축소시키게 됩니다.



Question 마지막으로 기독교 세계관과 연관이 한국의 목회자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nswer 신더 호리홀 저는 한국 교회뿐 아니라 미국 교회 역시 대화되면서 성도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복음적 선포를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인락한 이야기보다는 불편한 이야기를 가르치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라는 신학적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도들이 매일의 삶 속에 믿음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의 의미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Answer 헵크 헤르세마 저는 기독교 세계관을 세우는 데 있어 중요한 한 인물을 추천하는 것으로 말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영국 더럼(Durham) 주의 주교인 톨라이트(N.T. Wright)입니다. 그의 저작들은 세계관을 통한 접근 방식을 강조합니다. 기독교의 기원과 하나님에 관한 질문,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와 같은 책이 그렇습니다. 그가 매우 강하게 주장하는 바는 "복음의 메시지는 영혼을 구하기 위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신 '창조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 창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나아가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는 신학자로서 이러한 점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그의 책들을 통해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목회와 신학」 주관으로 진행된 인터뷰를 <월드뷰>를 통해 소개할 기회를 제공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신더 호리세마(Sander Gilman)

경제학과 철학을 공부했으며 헤겔의 사회철학의 종교적 측면을 연구한 The Rose and the Cross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마친 후 기독교 철학분야의 네델란드에 캐나다, 미국에서 교육과 저술로 봉사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전문인 사회철학 분야에서 많은 학문적 이바지를 했다. 먼저 및 저서로는 기독교 철학 역사들 다른 모든 사상을 사로잡아 *Bringing into Captivity Every Thought*, 사회과학의 중요한 개념들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정리한 *사회과학의 규범과 맥락, Norm and Context in the Social Sciences*, 세계관이라는 개념의 뿌리와 그 발전을 역사적으로 추적하고 그것이 사회과학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검토한 *세계관과 사회과학 Stained Glass: World Views and Social Sciences* 등이 있다. 아울러 불교 신학교의 총장인 리처드 마우(Richard Mouw)와 함께 쓴 <다원주의와 지평: 기독교 공공의 철학 Pluralisms and Horizons: An Essay in Christian Public Philosophy>외에도 <지리대 세계관: 기독교적 영성 Geography and Worldview: A Christian Reawakening>, 독일 철학자인 칼-올로 아펠의 공저 <윤리학에서의 권리의 위상: 다원주의 문화 속의 공공의 철학 What Right Does Ethics Have?: Public Philosophy in a Pluralistic Culture>도 중요한 저술 중 하나이다. 네델란드 개혁주의 철학협회, 국제 칼빈주의 철학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헨크 헤르세마(Henk G. Geertsema)

신학과 철학을 전공했으며 들트만의 역사신학과 종말론의 철학적 배경에 연구인 (원로부 터 앞으로 *From Upward to Forward*)라는 연구로 박사학위를 마쳤다. 그 후 현대철학과 신학 가운데 하이데거와 가타머의 철학적 해석학과 신학적 해석학, 그리고 신학과 학문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주력해왔다. 그는 네델란드 최고의 명문인 Utrecht와 Groningen의 기독교 철학 교수와 자유대학교의 도에베르트 석좌교수를 20년간 역임했다. 주된 연구 분야는 도에베르트의 철학이지만 인식론, 현대 과학의 인본학적 함의, 사회철학, 해석학 등 폭 넓은 분야를 연구하였다. 저서로는 개혁주의적 철학의 관점에서 할리우의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지식의 인간적 특성(het menselijk karakter van ons kennen)"와, "인간성 연구 (Om de humaniteit)"와 유명 학술지인 Zygon에 "Cyborg: Myth or Reality" (2006)를 발표해서 주목을 받은 논문과 <개혁신학과 성장신학연구 Reformed Theology and Biblical Studies> 등의 저술이 있다. 네델란드 라브러 공동체 활동에도 동참한 바 있다. <http://www.aflibfiedebened.co.uk/geertsema.htm> 에 관련 자료를 찾는다.



Worldview Special
**아버지 그리고 남자에 대해
 생각하다**

누군가의 아들로 인생을 시작한 이 땅의 남성들.
 어느 순간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
 친구도 있고 동료도 있고 가족도 있지만,
 외딴 섬처럼 홀로 슬픔을 한숨에 담아 숨기며 살아간다.
 아플 수도 없는, 이따도 될 수 없는...
 그래서 외롭고 힘겨운 길을 묵묵히 내딛는다.
 도대체 아버지는 누구인가?
 성경은 아버지에 대해 무어라 말하고 있을까?
 아버지 그리고 남자에 대해 질문해 본다.